선생님!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李 鍾 珉
(全北大 英語英文學科)

선생님! 이제 햇병아리 교수의 티를 벗어나려 하는 요즘, 저는 "오늘날의 大學에서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하는 고민에 자주 사로잡히곤 합니다. 대학교수로서 당연한 주요 관심사이어야 하는 것인데 임용 초기에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같습니다. 졸업정원제 덕분에 대학이 겁도 없이 커져 별다른 업적이나 경력없이도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시절, 제 고민의 대부분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선생님들의 敎育方法에 대한 반발 혹은 문제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학에 상아탑의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던 시절 선생님들의 모습은 신비스러웠습니다. 꺼벙한 옷차림에 균형잡히지 않은 몸놀림, 게다가 어눌한 말솜씨. 무엇인가 심오한 깨달음이 있어 겉모습이 저렇게 어리숙하게 나타나리라 여기며 그 모습을 어줍게 흉내내기도 했었지요. 강의는 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무슨 禪問答도 아니고… 선생님께서 난해한 現代英美詩를 강의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의 하나는 "Any question?" 등의 질문으로 저희를 당혹스럽게 하셨던 일입니다. 주어, 술어도 파악하지 못하여 해석도 못하고 낑낑대는 저희들에게 선생님은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질문이나 評을 요구하셨지요. 詩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시의 묘미를 망가뜨리기라도 하는 양 선생님께서는 해설을 최대한 억제하셨습니다. 당신 혼자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시어 알 수 없는 高談峻論으로 話頭조차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무지몽매한 저희들의 기를 꺾곤 하셨지요. 타고르로 시작된 이야기가 한용운을 거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로 뻐져 나가다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두리뭉실 끝나버려 저희는 혼돈의 荒野에서 의기소침해야 했었죠. 그 의기소침이 저희를 분발케 하는 자극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교단에 서게 된다면 적어도 선문답식의 강의는 하지 않겠다고. 조금은 체계적이고 학생들의 처지를 충분히 감안한 강의를 통해 학생들을 자상하게 이끌어 주겠다고. 세세한 설명을 억제한 채 방향과 단서만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해나가도록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기를 꺾는 일만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선생님! 지금 와 생각해 볼 때, 과연 선생님들의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저희들 방식이 더 바람직한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더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

다. 더욱 다급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초부터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풋나기 시절에는 나의 전공, 내가 그래도 나름으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노력해 왔던 부분을 가르치기만 하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대학의 理念이나 役割에 대한 고민은 이미 (다른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 정리된 것이니 주어진 전공 부분만 성실히 강의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그 이후의 결과는 조화롭게 마무리되겠지" 하는 편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고민의 시작은 수십 명에 달하는 저희 영문학과 학생 중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얻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직면하면서부터였을 것입니다. 낭만주의 영시이건 현대 영미시이건 그것이 졸업 이후의 생활과 별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시험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專攻이란 무엇인가? 大學敎育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은 전공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어떤 분야에서건 일정한 境地에 이르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깨달음과 성숙함을 얻게 된다. 어느 교양영어 교과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전공없이 잡다한 교양적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은 '베니어판처럼 천박한 교양'에 머무를 수가 있다. 바둑의 천재인 조치훈이 어릴적 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그 나이의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성숙한 면모를 보여 준다. 아인쉬타인은 물리학의 최고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위대한 사상가요 철학자가 될 수 있었다" 등이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당화가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고민의 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해결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섭리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意味와 正當性이 입증될 수 있다는 초창기의 소박한 전제와 별다를 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機能主義的 사고 방식이 실제로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심각한 역기능이 헛병아리의 처지를 벗어나는 듯하자 눈에 띄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공만 열심히 연구하고 교수하면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하여 세상이 조화롭게 꾸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득을 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현상을 원활하게 유지·통어하기 위하여 네세우는 허위이념의 교묘한 변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와 음모를 숨기기 위해 필요한 '神秘化 과정'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호기심을 자극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 수 없어요'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고, 사람들의 억제할 수 없는 호기심은 전체를 조망할 수 없는 좁은 전공부분에 대한 연구로 대리 충족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학생은 학생답게! 교수는 교수답게!"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교수들에게는 그 '알 수 없는 세상'의 일개 부속품으로 기능할 전문인력을 키워내라 요구하고 그 요구에 상응하는 사회적 응대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교한 자본주의의 分業體系입니까?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거기서 나온 생산품은 몇 안 되는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뒤틀린 현실을 유지시키기 위해 단순한 기능인으로 훌륭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 기득권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이기적 출세주의자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열악한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 입신하려는 젊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대학이 이들의 이기주의를, 이들의 출세 지상주의를 방조 아니 助長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에 들어온 사람이 저 혼자 잘나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삶의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낙오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은 이처럼 본의 아니게 낙오된 무수한 젊은이들을 좌절시키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지요. 우리 교수들은 이를 위해 소수의 이기적 속물들을 키워내고 있고요.

선생님!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사회적 신분상승을 위해 정신없는 이들에게 윌리암 블레이크의 시 작품을 열심히 읽히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가요? 신동엽도 모르는 이들이 워즈워쓰를 읽음으로써 우리의 世上과 歷史에 대한 깨달음을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들은 영문학자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시인으로 살아갈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는 순진한 허영심(?)을 잃지 않아 가끔 시집을 뒤적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대학이 보장해 주는 기득권을 한껏 이용하여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강의실에서 들은 얘기를 하루 빨리 잊으려고 열심일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그러하니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인가요? 소외된 많은 사람들은 일단 대학에 못들어왔으니 대학교수가 문제삼을 일이 아닌 것인가요?

대학이 온통 속물적 출세주의자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더구나 주제넘게 스스로 구세주인 양하며 드리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거창하게 '교육 운운'하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격지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남다른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되돌려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負擔感에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최소한 단순 기능인(혹은 봉급쟁이)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소박한 우월의식(어느 시인은 이러한 명성에의 욕망이 우리를 분발케 하는 원동력이라 하지 않았던가요?)이 이러한 고민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제야 선생님들의 어색한 몸놀림과 주저주저하시는 말씀 혹은 선문답과도 같은 강의의 숨은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왜 타고르에서 한용운으로 넘어가는 연결부분이 불분명하고 니체로 넘어간 얘기가 되돌아오지 못하고 어설프게 마무리되는지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제 고민의 흔적을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듯합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소위 雜文을 쓰지 말라 하시면서도 스스로는 왜 그런 잡문을 포기하지 못하시는지도 알 수 있을 것같습니다(되지 못하게 저같은 풋나기가 그런 얼치기 흉내를 '지금' 내면서 그 변명거리를 여기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무엇을'의 문제는 '어떻게'의 문제와 不可分의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가요? 그러나 이런 식의 여정쩽한 해소는 무언가 구린 데가 있어 보입니다. 답답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직 깨달음이 천박한 처지에 선생님들의 도사적 '跋行'을 흉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입니다.

객설이 길어져 송구스럽습니다. 대학이 점점 더 심각한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듯한 지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 후학들에게도 변함없는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